

탄자니아 11 월 선교지 소식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샬롬!

사랑하는 동부 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께 참으로 오랜만에 소식을 올립니다. 늦은 소식 너무 죄송합니다.

사도요한의 '가이오' 장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11 월을 맞이하여 선교회 모든 식구들과 교회들 위에 넘치시길 기원하며 소식 올립니다.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동정

지난 7 월 말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어느덧 3 개월이 지났네요. 한국에서 김은래 선교사 영주권 인터뷰 날을 기다리며 앞으로 미국에서의 삶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어디에 마련할지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출국 날이 되어 공항으로 가는 중에 북 버지니아주에 있는 GBC(그레이스 성경교회)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으니 3 개월동안 설교목사로 섬겨 주세요'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기도한대로 주님의 계획인 줄 알고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에 흔쾌히 임했는데 벌써 그 3 개월이 막 끝이 났습니다.

도착 후 선교회 홍계호 이사장님 댁에서 잠시나마 임시 거처지를 삼고 지난 3 개월동안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 다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지난날 목회 과정과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 배우지 못한 점들을 다시 배우며 교우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GBC(그레이스 성경교회)와 기도해주신 선교회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위한 기도

이제부터는 처음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또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미국에 정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김은래 선교사의 영주권, SSN(사회보장 번호), 운전면허증이 모두 준비되었고, 필요한 차량 구입도 완료되었기에 어디든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남은 삶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나누어 주신 선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력선교를 통하여 탕가신학교와,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그리고 탕가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후방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을 많이 붙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6 년동안 선교지의 삶을 통하여 배웠던 헌신과 순수하고자 노력했던 마음, 그리고 세계선교를 향한 열정이 **새로운 곳에서의 환경과 삶의 방식에 의하여 방해받거나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탕가 신학교 소식

탕가신학교 소식은 학교 리더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자주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8 월에는 매해 2 년마다 갖는 총 동창회(Alumni)도 잘 마쳤고 지금은 2021 년의 마지막 학기 중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1 월 26 일에는 제 21 회 졸업식을 갖게 되는데 벌써 졸업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올해는 총 26 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된답니다.



탕가 신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

이 부분은 크게 2 가지로 나누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학교 학생들의 학비 후원.

탕가 신학교는 2020 년 이양 받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정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신학생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 학비가 저렴한데에서 오는 기숙사 생활의 '삶의 질' 이 좋지 못한데 후방에서 학생들의 학비를 후원해준다면 식생활의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계속된 후원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 성적 장학금 후원

탕가 신학교는 1 년 3-term(3 학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 학기마다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 상위 성적 3 명(총 9 명)에게 지불되며, 영어 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필요한 금액은 약 $300 입니다. 성적 장학금의 출발은 오래 전 사역지를 방문하러 오셨던 단기 선교 팀원들이 남겨두신 헌금이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모금이 부족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사역지에 있을 때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제 후방에 나와 있다 보니 성적 장학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성적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성적장학금 지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신학교 동문 사역지 방문

탕가 신학교는 지금까지 약 400 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을 배출시켰고 약 70%가 탄자니아 전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은 여성

지도자들로 각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WhatsApp(카톡과 같은 기능)이라는 SNS 를 이용하여 수시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200 명에 가까운 동문들이 접속하여 함께 사역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탕가신학교의 정신을 이어 가려 노력합니다. 다른 방법은 각 지역의 졸업생들을 묶어 지역의 변화를 위해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역지에 있을 때에 했던 방법으로, 이는 직접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 있는 동문들을 함께 모아 시간을 갖는 방법입니다. 직접 얼굴을 대하며 만나는 것이므로 무척 정이 돈독해집니다. 이제는 신학교 학장이신 Rev. Gorge Nywage 목사님께서 우리의 뒤를 이어 졸업생들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가운 소식은 10 년 전에 졸업한 마사이 부족 출신의 한 동문은 자기가 목회하는 고향동네에서 조그마한 규모의 신학교를 열어, 1 차적으로 주의 종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 년 동안 배출된 졸업생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각 교단의 핵심 지도자들이 되어 교회와 교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지속되어서 신학교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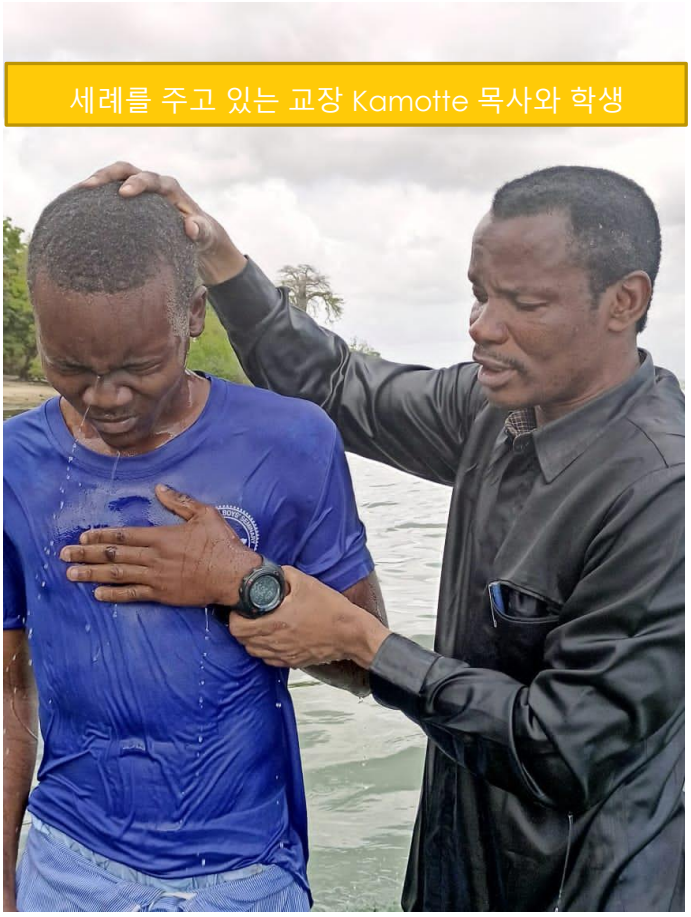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탄자니아 탕가주(State)의 무헤자 마을에 위치한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는 지금 덥고 건조한 날씨와 함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채플예배의 찬양소리가 이곳 버지니아에도 들려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도 아침마다 스와힐리 찬양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하는 탄자니아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합동 세례식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2016 년 대전에서 과학캠프팀이 왔을 때 리빙 스톤은 103 명의 학생들에게 합동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때 한국에서 온 캠프팀 가운데 두 분이 함께 세례를 받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여 인도양 앞바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지요. 참으로 사역지에서 단기 사역팀이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일은 우리에게 더 큰 감격이었습니다.

지난 10 월 18 일 주일, 64 명의 학생과 교사 1 명, 총 65 명의 리빙 스톤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학교의 핵심 멤버로서 천주교 신자였으나 리빙 스톤에서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열심 있는 교사입니다. 앞으로 리빙 스톤에서 보다 영향력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갖추도록 학교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재원입니다.



세례를 주고 있는 교장 Kamotte 목사와 학생



인도양 앞바다에서 침례를 준비하는 Rev. Nywage



침례 증서 수여와 결단의 시간

다음은 학사 일정입니다. 현재 중학교 2 학년 학생들은 11 월 1 일부터 시작된 국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학생들을 선별하는 테스트로서 10 개 학과목 모두를 치르고 있으며 11 월 9 일에 모든 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2 학년 학생들의 시험 전 마지막 수업

2 학년에 이어 4 학년 학생들이 11 월 15 일부터 국가 시험을 시작하여 24 일까지 계속합니다. 지난 해 코로나 19 판데믹으로 늦추어 졌던 정부의 중등학교 학사일정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올해 모든 국가 시험도 2 주씩 미뤄졌습니다. 2 학년 시험에 비하여 비중이 너무 큰 시험이므로 때로 어떤 학생들은 너무 떨려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4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재량껏 발휘하여 무사히 잘 마치고 다음

날 있을 제 7 회 중학교 졸업식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7 회 중학교 졸업기념사진

고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은 지역에서 준비하는 대입 전 모의고사를 11 월 9 일부터 약 열흘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내년 5 월 국가시험의 결과에 반영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감사하게도 국가 시험을 치르는 학년인 2, 4, 6 학년 학생들은 2 학년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치르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참 기특하지요?! 해마다 리빙 스톤 학생들이 전통처럼 지켜오고 있습니다. 금식하다가 공부에 집중을 못할까 하여 늘 염려했었지만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습관인 것 같아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은 각자의 학사일정을 따라 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1 학년과 3 학년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12 월 4 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학교는 학업을 계속합니다. 같은 날 내년에 1 학년으로 입학할 학생들이 3 주간 pre-Form One 코스를 시작합니다. 더불어 방학 동안 학교가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교사-학생 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빙 스톤 학교에서 스텝으로 일해오던 Mr. Michael Daffa 가 하나님의 부름(calling)을 받고 탕가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이 스텝과 함께 성경 읽기 앱을 통하여 성경 일독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일독 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독려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중입니다. 마이클은 2015 년부터 기숙사 사감으로 시작하여 non-teaching staff 의 총괄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를 도와 헌신하였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기도해 왔고 이제 순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신실한 청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각 분야의 노밸상이 발표되었지요. 올해 노벨문학생은 탄자니아 잔지바르 난민 출신의, 이제는 영국 시민이 된 작가 Abdulrazak Gurnah 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이름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는 기회가 되어 많이 기뻤습니다. 그의 많은 소설은 식민지를 지나온 부모 세대와 그 자녀들의 성장에 영향을 준 독립 이후 혼동의 사회가 겪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을, 성장통을 겪는 소년의 눈으로 그리고 젊은 이의 눈으로 그려냈습니다. 사역지를 이양하고 떠나온 시점에서 이들 소설을 몇 권 먼저 읽고 사역지에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외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역지의 정보와 역사를 공부하고 사역지에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이슈를 그려낸 글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 속에서 읽어 내기 힘든 문화와 숨겨진 정서, 아픔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나눌 기도제목들

1. 박선교사 가정의 앞으로의 사역과 정착지를 위하여.
2. 탕가신학교 동문들의 사역을 위하여.
3. 탕가신학교 학생들 학비 및 성적 장학금 모금을 위하여.
4.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의 원만한 학사일정과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11 월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과 섬기는 교회들 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21 년 11 월 9 일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드림.